

조선 직업총동맹 제 8 차 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 대진군에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세가 더욱 충천해지고있는 속에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가 25일과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서한 《직업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 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를 리일한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달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나라의 경제를 정비보강하여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 단계를 목표로 제시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우리앞에 도래한 위대한 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고조시대는 창조와 건설의 주역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들고일어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경제건설 력사에서 전설적인 기적을 창조한 전후북부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과 기백을 오늘의 혁명적진군에서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 단계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만아들로서 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것을 바라는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정적 인 령도와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직업동맹이 혁명의 전위부대, 끝간부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하여 애국애족의 고귀한 전취물을 온갖 힘으로 수호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향도따라 애국애족으로 빛내여온 총련의 자랑찬 려정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6돐에 즈음하여 -

어머니조국과 숨결도 결음도 운명도 함께 하여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5월 25일 66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6돐을 맞아 보내주시는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의사를 보내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6돐을 맞아 보내주시는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의사를 보내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6돐을 맞아 보내주시는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의사를 보내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6돐을 맞아 보내주시는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의사를 보내고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66돐을 맞아 보내주시는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의사를 보내고있다.

에로부터 돈놓고는 웃지 않아도 아이놓고는 웃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꾸밈없고 재롱스러운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을 더해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어린이들, 응당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꽃망울들이 좋은 제도를 만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수난과 불행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불행은 거시자고 1949년 국제민주주의자대회 리사회 회의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선포하였다.

회의가 있는 다음해인 1950년부터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6월 1일을 제국주의의 반동적정책과 자본주의의 온갖 악폐로부터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기념해오고있다.

그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어린이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다.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사회적부패와 팽배속에 불행과 고통을 겪는 어린이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멀리 볼것도 없이 남조선에서 지난해 10월 16개월된 어린이가 부모들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일어나 사회를 경악시켰던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후대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이기주의가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침식되어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어 사회적으로 제일 큰 사랑과 보호

기쁨속에, 행복속에 자라는 공화국의 어린이들

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꽃망울도 터쳐보지 못한채 시들어가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 서도 후대들의 고운 꿈과 아름다운 희망이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태어나면 애기공진, 자라나면 소년공진》이라는 노래의 구절도 있듯이 공화국의 어린이들은 행복의 요람, 사랑의 궁전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그 사회의 미래를 알려주는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거짓과 가식을 모르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속마음을 꾸밈없이 내비치기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면 해당 나라의 현실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장래까지도 가늠할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오늘날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조국의 미래로, 가정의 보배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나고있는것은 태양과도 같은 열과 빛,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시기때문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의 숭고한 후대관의 발현이며 그의 천부이기도 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귀여워하고 애지중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 일기본 순간은 아이들속에 계시 때이고 제일 행복한 시

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을 울려떨릴 때이다. 삶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아이들의 웃음에서 찾으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끝없이 이어가신 사랑의 천만리길우에 꽃피는 이야기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창건거리 새 집에 사는 로동자의 자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최대열적지역 섬마을의 어린이, 인민외의빙상장의 얼음관우를 누비던 나이린 꼬마들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의 기쁨사전을 찍었던가.

어느 한 유치원을 찾으신 그날에는 의사용품을 내는 어린이에게서 《진찰》도 받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어린이의 편지에 빨간별도 그려주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는분, 아이들에게 현대적인 병원을 지어주시기

위해 비내리는 곳엔날 진창길을 걸으시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안겨주고싶어하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마음쓰시며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은 이 땅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수한 전설을 낳았다.

지금도 사람들은 주제 104(2015)년 신년사를 마친신그리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새해를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돌보시여야 할 일, 찾으실 곳이 많고갈건만 원아들부터 먼저 찾아주시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비오

며 인민들은 누구나 격정에 목이 메고 절세위인의 크나큰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와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이 설을 어떻게 쇠는가를 친어버리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돌아켜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부모없는 원아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던가.

주제103(2014)년 2월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보육과 지능개발, 체력단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려주시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대동강기슭의 풍치수려한 곳에 아이들의 행복의 궁전인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으며 나라의 도처에 현대적인 육아원과 애육원들이 려이어 솟아날수 있었다.

어찌 이뿐이랴. 언제인가는 전국의 육아

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의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며 물고기를 전적으로 맡아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때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한 길에 그대로 한몸이 모래알이 되어 뿌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조,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를 안으시고 오늘도 후대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이처럼 자애로운 아버지의 따사로운 사랑과 다심한 보살핌속에 어린이들이 성장에 부러운것 없이 밝게 웃으며 행복동으로,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은 휘황찬란한 래일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에서 준공레프를 끊는 원아들 (2015년)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 -경상유치원에서- (2019년)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는 화폭들

사진 한장의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다. 그러나 그 한장한장에 담겨진 사랑과 헌신의 무게로 하여 조국과 인민이 함께 번져야 할 불멸의 화폭들이 있다. 합치고합치면 행복한 인민의 모습이 되고 모고모오면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꽃피는 백두산아래 첫 동네로부터 최대열적지대에 이르는 공화국의 전 지역이 되는 숭고한 그 화폭들에서는 이 나라, 이 인민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장창한 미래를 볼수 있다. 자신의 한몸을 초물처럼 불태우시며 인민에게 열과 정을 주시고 인민의 미래를 등불처럼 밝히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헌신의 그 길은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지. 본사편집국은 불멸의 명화폭들이 전하는 감명깊은 이야기들을 련제형식으로 펼쳐게 된다.

세간만 자식들의 집을 찾으시듯

방직공이라고 하면 천짜는 로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평범한 로동자가 온 나라가 아는 영웅이 되고 수도총장부의 명당자리에서 일떠선 고급살림집에서 산다고 하면 세상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다.

바로 이 방직공영웅이 보금자리를 편 새 집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먼저 찾아오시여 축하해주시였다. 유복너로 태어나 처녀시절에 어머니까지 잃은 방직공영웅 문강순,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는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녀성의 몸으로 영웅이 되고 새 집까지 받고보니 불현듯 누구보다 기뻐해주실 부모님들의 얼굴이 무척 그리웠다.

그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자기 집에 꿈만 같이 찾아오신분은 경애하는 그이이였다. 편안한 의자도 있건만 그이께서는 친부모처럼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갖

결혼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정정게 들어주시였다. 새집들이선물을 내놓으시며 눈물에 젖은 문강순영웅과 그의 남편을 사려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은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잊지 못할 화폭이다.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그이께서는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 물어주시였다. 그 물음사이 친부모와도 같이 다심하여 문강순영웅은 그만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았고 남편은 어려움도 잊고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고 대답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호랑하게 웃으시며 창건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어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

민대중을 위해 나라의 명당 자리마다에 훌륭한 새 거리가 번화하게 일떠서고 또 일터마다에는 로동자합숙이 궁궐처럼 꾸려져 보람차고 문명한 삶을 안겨주고있다.

지금 평양시의 송신, 송화지구에도 인민을 위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 도처에 인민을 위한 리상거리, 리상마을들이 일떠서고있다.

해마다 일떠서는 이 리상거리들에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의 화폭들은 얼마나 무수히 새겨졌던가. 그래서 인민들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조국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라고 노래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오늘도 행복의 창가마다에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을 전하며 즐거움과 광만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밝고도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몇해전 11월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

품을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며 혁명을 하는 것도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서이며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성화이자 어린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풍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숭고한 후대사랑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처음으로 아동백화점을 찾으신것은 주제 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백화점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동백화점의 면적이 대단히 넓다고 하시면서 상점에 매장뿐만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실내놀이터라니? 그이를 동행하던 일군들에게는 뜻밖의 말씀이였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동용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아동백화점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데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군들과 백화점봉사자들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백화점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리는것은 세계적으로 추세이라고, 아동백화점을 새로 꾸릴바에는 세계적수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놀이터를 꾸려놓고 부모들이 매 대를 돌아보며 상품을 사는 동안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놀도록 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매 층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린다고 하여 방을 따로 꾸릴 필요는 없다고, 매 층의 홀이나 어느

적당한 곳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 놓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을 차려놓으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그이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백화점에 아동차, 미끄럼다리, 버섯집, 기차궤간놀이, 동물모형놀이, 이차, 자석놀이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실내놀이용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아동백화점에 아이들이 위한 놀이터들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이곳에서는 매일과 같이 어린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울려떨칠수 있게 되였다.

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소문도 없이 너무나 뜻밖에 찾아오시였으니 병원일군들과 아이들, 그 부모들이 어찌 감격과 격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으랴.

이날의 광경이 신문과 TV, 방송을 통하여 온 나라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였다. 어린이들과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그이는 정녕 하나의 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평양산원에서 513번째 세쌍둥이 퇴원

평양산원에서 513번째로 출생한 세쌍둥이(딸 3명)가 만사망의 축복속에 24일 퇴원하였다.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서 사는 세쌍둥이의 어머니 리옥신녀성은 다태자임신부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당의 다심한 은정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평양산원에서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였다.

산원의료집단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태어날 당시 1.75kg, 1.85kg, 1.38kg밖에 안되던 예기들의 몸무게가 퇴원할 때에는 4kg이상이 되었다.

평양산원을 나서는 세쌍둥이와 부모를 이곳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따듯이 배려하였다.

세쌍둥이의 부모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식들을 사회주의조국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울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4월 남북선석회의를 계기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더 높게 분출되었다. 하지만 외세와 그 추종세력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5.10 단선정부》를 조작하였다. 이로 하여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엄중한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당시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앞에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사이에 평양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열렸다. 이 협의회에서는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 최고법률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체없이 창건할데 대한 대책이 토의되었다.

이것은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에 타격을 주고 국토완결과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주동적인 대책이었다.

이렇게 되어 1948년 9월 전례 조선인민의 총의가 반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게 되었다.

이처럼 공화국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과 지지, 투쟁속에 창건되었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은 전조선적인 민족통일선형성의 절박한 요구와 통일선운동의 귀중한 경험에 비추어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

단체들을 총집결하는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갔다.

하여 1949년 6월 하순 평양에서는 전례 조선인민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속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결성대회가 소집되었다.

조국전선의 결성은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든든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사변적의를 가졌다.

대회에서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긴박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쟁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선언서에는 조선인민 자신이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고 비법적인 《유엔조선위원회》를 해체하며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 최고법률기관을 세우고 중앙정부를 조직할데 대한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이 천명되어있었다.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은 진실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었다.

하기에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은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군중이 직장대회, 군중대회, 가두집회를 열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를 지지환영하며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결성서를 채택하였으며 각계 인사들은 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련이어 단화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을 전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조국전선의 제의를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나섰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은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남조선에서 조국전선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38°선일대에 침략무력을 급속히 증강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나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 취하였다.

1950년 6월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이 채택발표되었다.

호소문에서는 8월 5일부터 8일사이에 북과 남의 전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최고법률기관을 창설하며 8월 15일에 최고법률기관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

리고 평화통일의 제 조건과 총선거의 절차, 총선거를 지도할 중앙지도위원회 창설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17일사이에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공화국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타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공화국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북남총선거를 통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정당한 제안을 반대하는 조건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법률기관으로 변할하는 방법으로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획기적방안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

일한 전조선법률기관으로 연합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성립된 전조선법률기관은 헌법을 채택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전조선법률기관을 새로 선거하며 북남조선의 군대를 단일한 군대로 개편하고 《유엔조선위원회》를 조선에서 즉시 철거시킬것을 밝히었다.

이것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인 새 전세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평화통일 실현의 가능성이 없어지고있던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전쟁을 방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노력의 뚜렷한 증거였다.

그러나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공화국의 정당한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무작정 반대하여나서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나간 3명의 북측 파견원들까지 불법체포하여 야수적으로 박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하였다.

장원 기



《단선》, 《단정》을 반대배격하는 남조선인민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민족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사활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비법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셨었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문제를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민족의 요구와 근본이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도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환경생견지하여오신 민족대단합의 리념에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없었고 신앙과 재산의 유무가 없었다.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위하시는 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넓은신 도량과 포용력이 깊이 감복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피어린 나날 최후오나 바친진, 김정부를 비롯한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이 반일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뭉치었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과거경력이나 정견,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통일애국의 대에에 합류할수 있었다.

주제37(1948)년 5월의 따뜻한 봄날,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동강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속섬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었다.

큰 버드나무밑에 돛자리를 깔고 마련된 식탁우에는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오늘 섬에다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사양 말고 많이 드라고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벌여야 하겠는데 통일대업을 위하여 부디 건강강기를 축원한다고 하시었다.

랑옆에 앉아있던 김구, 김구식선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화기에예한 분위기가 차던 치는 오찬석상에서 우사 김구식이 자기 한생애 이렇게 마음 즐겁게 들놀이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말하자 백범 김구는 대동강송어맛이 참 별맛이라고 하면서 자기 도 룡악산근방에 있는 사

찰에서 증노릇을 할 때 여기 와서 대동강송어맛을 여러번 보았다고 옛일을 추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처님》이 알았더라면 대단히 노했으리라고 하시며 그의 말을 받아주시었다.

그바람에 좌중은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이런 속에서 백범이 《장군님말씀이 옳지요. 이 사람이 그때 송어를 잡아 먹은것을 누구도 몰랐으니 망정이지 알았더라면 사찰에서 당장 쫓겨났을것입니다.》라고 말하자 또 한바탕 폭소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북남의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고 가슴들이 봄바람처럼 훈훈해지는 민족대화합의 위대한 화폭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백범이 령천암 주지노릇을 하던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화제는 점차 종교에 대한 문제로 번져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다시금 잔을 권하시며 종교인가운데는 우리와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는 관계없이 누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일을 할수 있다고, 임직왜관때 수천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왜놈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잘 싸운 우리 나라의 서산대사와 사명당도 증이었다고 뜻깊게 고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시하시었다.

《신을 믿고 안 믿는것은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믿어도 남의 나라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으며 남조선대표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의 그 숭고한 뜻에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본사기자 최광혁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빛을 두려워하는 밤도깨비들의 망동

부정의예로의 길은 수천갈래이지만 정의예로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보수세력의 망동으로 증식되었던 민족의 어머니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다시 출판, 보급될수 있다는데 대해 환호하는것도 하나의 실증일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출판사 《민중사랑방》이 원문 그대로 출판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권-8권)가 주요시점들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며 보수단체, 보수언론들은 《《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리적표현물의 보급을 막아야 한다》고 고대하면서 고발한다, 소송한다 아부재기를 쳐왔다.

빛을 두려워하는 밤도깨비들처럼 새날을 밝히는 정의와 진리를 두려워하는자들의 단발마적인 발악이다.

위대한 수령, 절세의 위인, 민족의 어머니의 한생애 집대성되어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항일성전의 영광넘친 업적만이 아니라 우주를 깨우치고 세기를 밝히는 참다운 진리와 미래지향적인 진로가 있고 온 인류가 신봉하는 철학이 있으며 운명개척의 지침이 담겨진 대백과사전이다.

전세계에 보급되고 국경과 대륙을 넘어 인류가 우러르는 절세위인의 회고록을 유독 남조

선인민들만이 마음놓고 볼수 없다는것은 세기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중사랑방》이 늦게나마 절세위인의 회고록을 남조선에서 출판한것은 찬양할만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고귀한 재부이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절세위인의 회고록을 출판, 보급하는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정치적 욕구로 된다.

이 기회에 보수세력이 방패막이로 꺼내들군 하는 《보안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동족대결의 파썸칼날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보안법》은 이미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과거사를 다 라벌할것도 없이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2009년부터 2014년사이에 단지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안법》위반의 딱지를 받고 인터넷에서 삭제된 자료가 20만 6 400여건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번에 《한간행물물리위원회》와 남조선법원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 보급하는데 대해 문제시하지 않기로 한것은 《보안법》이 제명을 다산 폐기품으로 되고있음을 보여

주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남과 북이 공유해야 할 민족의 공동자산이다. 《보안법》상의 《리적표현물》규정이 더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수 없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압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보안법》폐지를 적극 요구해나서고있다.

그러한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세력의 망동도 격분할 일인데 얼마전 남조선경찰이 《보안법》위반을 걸고 《민중사랑방》출판사와 대표의 집을 수색하고 회고록과 관련문서들을 압수해간것은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민심의 거세찬 흐름을 대결《골동품》인 《보안법》을 휘둘러막아보려는것은 구시대적 《창》을 들고 풍차에 돌진하는 현대판 《돈 끼호테》들의 망동이다.

현실은 민심의 흐름과 시대적 지향마저 완전히 차단되는 남조선이아말로 정의와 진리의 폐쇄지대임을 실증해준다.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정의와 진리를 따르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렬한 지향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정의와 민주를 위한 의로운 투쟁

최근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로써 《성립요건을 채운 보안법폐지에 관한 청원》은 《국회》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던 남조선에서는 《보안법》폐해자 중언대회도 곧 개최되게 된다고 한다.

《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크고 사무쳤으면 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어서고 피해자 중언대회까지 개최되게 되었겠는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보안법》폐지투쟁은 반민주, 반통일악법을 철폐하고 사회정의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보안법》으로 말하면 애당초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반민주, 반통일악법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룩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조국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지긋지긋 남조선에서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립만을 고취하는데 리용당해왔다.

몇년전 남조선에서 한 재미동포녀성이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한것이 《보안법》에 걸려 온 남남방을 법석 풀게 했던것을 사람들은 특독히 기억하고있다.

그가 이야기한것이란 평양을 방문하면서 강렬하게 느꼈던 북녘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차있고 희망에 넘쳐있는것이 보였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

어다니고 아이들은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북의 맥주가 맛이 좋다》, 《대동강물이 맑다》고 한것뿐이었다.

그런데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대로 이야기한것이 《북을 고무찬양》한것이라고 하면서 《죄목》으로 되었으니 《보안법》이 야말로 얼마나 황당한 악법인가.

회세의 동족대결악법, 반통일악법을 그대로 두고 동

일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추구하는 반통일악법,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파썸악법 《보안법》은 더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되며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민중사랑방》출판사와 대표의 집을 수색하고 관련문서들을 압수해가는 남조선경찰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망동을 일삼고있다.

일마전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가 진행된 것만 해도 그렇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리해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력》제공, 《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의 《3자공조》 강화 등이 모의되었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실현에 편승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라는 것이 남조선과 미국이 쌍방사회의 군사관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내은 《차관보협의체》로서 미국의 대조선압살기도와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 회의에서 그 무슨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한 평가가 《공유》되고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협력강화와 《한미일3자공조》 강화가 토의되었다고 보도도 잘 알 수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이 《동맹우선주의》를 내걸고 적극 추진하고있는 《한미일3자공조》 강화에 가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 언론들이 전한 데 의하면 지난 4월 초 《한》미일안보실장협의회와 4월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합동참모본부 의장회의가 진행되며 이어 5월에 들어와서도 《한》미일의교장관회담과 《한》미일정보수장들의 비공개회담 등이 려이여 벌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6월 초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국방장관회담이, 6월 중순경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수뇌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수뇌회담이 추진되는 데 주 공화국을 겨냥한 《한미일3자안보협력》 강화문제가 토의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한미일3자공조》를

최우선외교정책으로 삼고있는 미행정부의 중재로 《한》미일사이의 교류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지고있다. 《한미일3자공조》가 동북아시아안보로가 될수 있다. 북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경제침을 자아내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한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남조선이 미국과의 군사적공모결과와 함께 《한미일3자공조》 강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아동학대가 범주가 아니라니...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당대의 사회상과 정치의 참모습이 비친다고 한다. 거짓과 가식을 모르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꾸밈없는 속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해당 나라의 현실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장래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맑은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 사회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세상에 태어난지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져 올해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사회를 범식 쪼개 한 정인사건, 이북아비지가 날에 달곤 쇠저가라와 남미

로 7살 난 딸의 손과 발등을 지저 심한 화상을 입히고도 모자라 쇠사슬로 목을 묶어 밤까지 굶겨 학대를 이어간 경상남도 창녕의 아동학대사건, 충청남도 천안에서 계모가 9살 난 아이를 러행용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사건 등은 참혹한 아동학대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출생한지 15개월 된 아이를 실사를 자주 한다는 리유로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하고 아이의 코와 입을 막은 채 욕조에 얼굴을 담그거나 목욕을 시킨다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어린이집》에서의 학대행위도 수없이 많다.

남조선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건수는 2016년에는 1만 8 700건, 2017년은 2만 2 367건, 2018년 2만 4 604건, 2019년 3만 700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 및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50~70%가 친부모들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부모의 품이 제일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제2, 제3의 정인들이 늘어나고있는 사회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동학대가 없지

지 못하고있는 근원?

잠시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그러나 처벌은 참혹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중 3분의 1만이 형사사건화됐다. 아동학대범죄 3건중 2건은 립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지어 재판까지 가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에 불과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동학대범죄자 100명중 99명은 벌금조차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많은 국민은 신고된 아동학대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정한 사건중 약 70%는 아예 형사사건화되지 않아 사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느 한 대학의 범죄심리학 교수는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

다》라고 잘라말했다. ... 남조선에서 아동학대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결코 다름이 있지 않다. 남조선사회제도과 정치의 구조적모순과 반인민적악정이 번식시키는 사회악 때문이다.

저 하나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이 사회현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인간은 인간에 대해 승남이》로 변질, 라락시키고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사고관, 생활리기가 증식된 남조선에서 아직은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 범죄의 범죄로 대상, 육구불만의 상대로 되고 삶을 포기한 타락한 인성들이 자식마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불인정의 구렁텅이로 서슴없이 내동댕이치게 만드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 광 혁

남조선에서 보수적인 정치 퇴물들이 권력야망을 다시 드러내보이고있어 민심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국민의힘》과 련관이 있는 황교안과 홍준표가 바로 그러하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때 보수야당의 참패를 책임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던 황교안이 권력야심은 어쩔수 없는지라 지난 3월 낮가죽 두겹게 정치활동재개를 선언하였다고 한다. 보수의 지지가반이라고 하는 경상남도지역을 돌아치려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대양진내 상전을 찾아가 《한미동맹》은 굳건한 가치동맹》이라는 나발을 늘어놓으며 충실한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갖은 추태를 다 부렸다.

한편 당시없는 망언과 비리성적인 광고로 하여 《홍기포배》로 불리우는 홍준표

도 《국민의힘》에 다시 기여하려 하고있다.

《국민의힘》을 지지기반으로 다음기 권력을 잡아보려는 속사산으로 이미 북당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후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약녀의 정치추진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청와대문건들을 《대통령기록》로 지정, 처리해버림으로써 저들의 범죄행적을 은

로 당대표가 된 후에는 리명박을 외면하고 다음기 《대통령》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져 경상남도지사직을 따낸 것이다.

권력의 동아줄을 좇아 아

망조가 든 자멸당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재보총선거이후 《국민의힘》이 《도로한국당》으로 퇴행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유신》독재의 부활을 갈구하는 극우보수분자로서 박근혜 《정권》시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노릇을 하면서 전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선 파조양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의 탄핵

페하고 력사와 민심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발악한 것으로 하여 초불민심의 주적 명까지 붙였다.

그의 변신은 박근혜탄핵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미 탄핵당한 사람을 출당시키는데도 《동위에서 칼을 쏘는 것》,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라고》 박근혜를 극구 비호두둔해나섰다가 약녀의 특대형범죄혐의가 려이 드러나자 언제 그랬나실게 《박근혜를 그냥 두자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고야하면서 가차없이 출당시키기도 한 비겁하고 더러운 자이다.

그러나 대가의 《자서전》에서 약물을 사용하여 녀성을 강간하려던 사실을 버젓이 공개하여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한 변태적인 호색광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이미 력사의 오물장에 버려졌어야 할 정치퇴물들이 또다시 권력야망을 드러내며 머리를 쳐들고있는 것이다.

악취풍기는 오물장에 쉬러리가 모여들듯이 이런자들이 다시 몸을 담그려고 하는 《국민의힘》은 더러운 《오물당》이고 이런 인간오작물을 깔까지 다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보수역적당이야말로 망조가 든 자멸당이라 해야 할 것이다.

리 승 건

《무조건반대》로 조소거리가 된 보수역적당

지난 21일 남조선의 《주권연주소》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제정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먼저 《국민의힘》이런 《정부》의 일이라면 덜어놓고 《무조건반대》에 열을 올린 나머지 저들이 발의한 법안까지도 반대하여 조소거리가 된데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폭로하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저들이 발의해놓고도 《공직선거법》개정안처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장석점거 등 난동을 부리다 못해 2019년 12월 《국회》본회의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9년 4월 교섭에

시작된 산불이 속속, 강릉 등 남조선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으로 번지면서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되었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은 《질문을 마칠 때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나갈 수 없다》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국회》에 불들어놓아 놓고 《무조건반대》에 열을 올린 나머지 저들이 발의한 법안까지도 반대하여 조소거리가 된데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폭로하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저들이 발의해놓고도 《공직선거법》개정안처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장석점거 등 난동을 부리다 못해 2019년 12월 《국회》본회의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9년 4월 교섭에

리쳤다고 폭로하였다. 지역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수검안을 설립했던 의원조소반대표를 던지자 회의장안에서는 《자신이 제안한 법안을 자신이 반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폭소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같은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사회적참사특별법》, 《5.18력사의폭처법》, 《4.3특별법개정안》, 《유치원3법》, 《언론개혁법》, 《검찰개혁법》, 《대북비라살포금지법》 등 국민이 바라고 지지하는 법안들을 무조건 반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은 애당초 《국민의힘》에 없었다. 저들의 리속을 챙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거나 제안하는 것이라면 《무조건반대》만 할뿐이라고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당권쟁탈에 혈안이 된 시정배들

남조선언론들이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활기》를 띠고 보도하고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표, 최고위원선거 등에 나온 인물들이 근 20명이나 된다고 하고 저마끔 목소리를 높이니 밖에서 듣기에는 《활기》있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뭐라 고야대는지 들어보면 저저마다 껌을 부리는 꼴이 영 불쌍스럽다.

조선 반, 중진 반 정도로 당대표선거에 나섰고 최고위원선거에는 조선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후보들을 보면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선거에 나서서 치마바람을 일으키는가 하면 중진들로부터 《아이》인류를 받는 30대의 인물도 《신진들》을 일으키겠다고 출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면 최고위원후보에는 박근혜 《정권》시기 청와대정부수석을 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개》정신으로 키운 녀성도, 원외 당위원장도 여럿이 나섰다고 한다.

변변한 인물이 없어 어디 출현 발말이 없나 하여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구차한 모양을 하던

때갈지 않다.

임이 열이면 말은 백이 된다고 했다가, 저저마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저 사람은 안된다고 꺾아 내리기를 하는데 불만 한 싸움이다.

《경륜》을 꽤 즐기는 중진들은 《로, 장, 청》을 적당히 배합해야 한다. 《경륜》이 부족한 《애송이》들에게 말렸다가 《실험정당》이 될수 있다고 꿈은목을 세우고 조선들은 《경륜》이 있어서 당이 망가지고 몰락했느냐고 맞받아친다.

웃기는 것은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후보들의 지참품이나 치켜거리로 치부되었다는 것이다.

중진이고 조선이고 전 검찰총장과의 개인적인연이 나 그 무슨 필연성을 운운하며 《윤석열을 내게 데려오겠다.》고 까치 흰배때기같은 소리를 뽐냈더니 말이다.

조선이라는 인물들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그들은 안돼, 박근혜를 탄핵시킨 놈이 아닌가 하고 목대에 힘을 주던 때가 언제였던가싶다.

약아빠진 조선들은 전 검찰총장을 당에 들이지만 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성세대인 중진들이 아니라 《참신》한 자기들을 뽑아야 한다고 양념을 쳐다

고 한다.

그런 속에 누구의 북당문제,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다시 데려오는 문제 등으로 대결구도가 딱 갈라졌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꽤 흥성인다고 평하면서 지난 전당대회때는 당대표출마자가 3명뿐이었던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고 한다.

대표이든 최고위원이든 당권을 잡으면 그렇다치고 가망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것들도 왜 우르르 쏟아나왔는가를 따져보니 왜냐하면 지방자치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왕 아무 자리도 따지 못할바에는 레닌의 지방자치제선거에라도 참가해보자, 지난 보총선거를 겪고나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당선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능 몽상자 키우고, 정 안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이름값을 미리 만들자면 당내경선에서 출마해서 언론에 이름을 한번 올려보자는 것 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있다.

《활기》가 아니라 권력야심가들의 광고로 점차 달아오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인 것이다.

본사기자 황 금 숙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의 가축마저 말살하려고

조선에 강점한 일제는 저들의 전쟁수요를 충족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시장에 팔아 더 많은 리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축산자원을 빼앗아갔다.

우선 조선에서 소라탈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소는 농경운반용을 겸하고 또 육용에 적합하므로 내지로 수출하고 ... 수출하는데 적당하다》고 지령하며 해마다 술한 소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일본국내와 다른 나라에 팔아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다.

1912년부터 1916년까지의 5년간에만도 일제는 조선의 농촌에서 9만 5 331마리에 달하는 소를 약탈하였다.

일제는 소뿐만아니라 수많은 개우족도 빼앗아다가 저들의 군수용물자로 써먹었다. 1912~1916년사이에만도 일제는 조선에서 232만 4 687마리에 달하는 소가죽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조선에서 소라탈을 더욱 다그쳤다.

일제는 이 시기에 조선의 소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우제제도》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호적제도》와 같이 중요하게 여겼다.

일제는 어느 농촌에서나 할

것없이 소를 모조리 조사하고 그것을 크기와 색깔, 수컷과 암컷, 연령 등으로 구별하여 하나하나 등록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약탈적인 《명부》를 만들어놓고 농민들이 저들의 허가없이 소를 잡거나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약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일제는 또한 당시 평안도, 함경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5개 도에 《우량우생산부락》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놓고 해당 부락농민들에게 특별히 엄격한 규칙에 따라 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규칙이란 소위 《1등급》을 만들기 위한것인데 소를 때리지도 말고 놀래우지도 말고 더럽히지도 말라는 것과 농사일에 사용하지 말고 잘 먹이라는 것 등이다.

이러한 《관리규칙》은 일제가 농민들에게서 더 좋은 소를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잡다한 규칙에 얽매인 농민들은 농사일에 소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전종일 고역에 내몰려야 했다.

일제는 또한 조선의 농촌, 농가들에서 소를 모조리 빼앗아갈 음흉한 계획으로부터 이른바 《축우의 비육장려》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농민

들의 사양관리에 간섭하였다.

일제는 이 약탈적인 《축우의 비육장려》를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구우자금융통》(소를 살수 있는 돈을 내주는 것)제도를 내렸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농민들에게 《구우자금》을 내주게 하고 이를 기회로 농민들에게서 수많은 돈을 빼내고 소를 빼앗아갔다.

일제총독부는 《군농회》를 시켜 미리 부리소를 얻어놓게 하고는 이른봄에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았다. 팔갈이를 근심하던 농민들은 할수 없이 《금융조합》의 돈을 꾸어다 소를 사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2중3중의 착취에 질려버린 경제적으로가 빈약하였던 농민들은 가을에 가서 꾸어다 쓴 돈을 갚을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착취에 일제총독부는 《군농회》를 부추겨 밧값을 내주고 소농들이 한해동안 뼈까지 지는 살신 소를 할값으로 빼앗아가게 하였다.

이렇듯 일제가 들고나온 《구우자금융통》이란 조선 농민들에게서 소를 빼앗아가기 위한 검은 속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제는 또한 농민들에게 송아지를 비싸게 팔아 기르게 하고는 그 송아지가 큰소

로 된 다음에는 할값으로 또 다시 빼앗아갔다.

일제는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강점기간 무려 170여만마리에 달하는 소를 강제로 약탈하여갔다.

일제는 이른바 《산마개량》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내세우고 조선의 곳곳에 수많은 말목장을 설치하고 조선 농민들을 끌어다다 강제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일제는 말목장에서 일본말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번식시키는 한편 《마종개량》이라는 관관림에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길러오던 조선말을 모조리 없애치울 것을 시도하였다.

일제는 1937년 대륙침략전쟁을 일으킨 후 조선에서 더욱 미친듯이 축산자원을 강

도적으로 약탈하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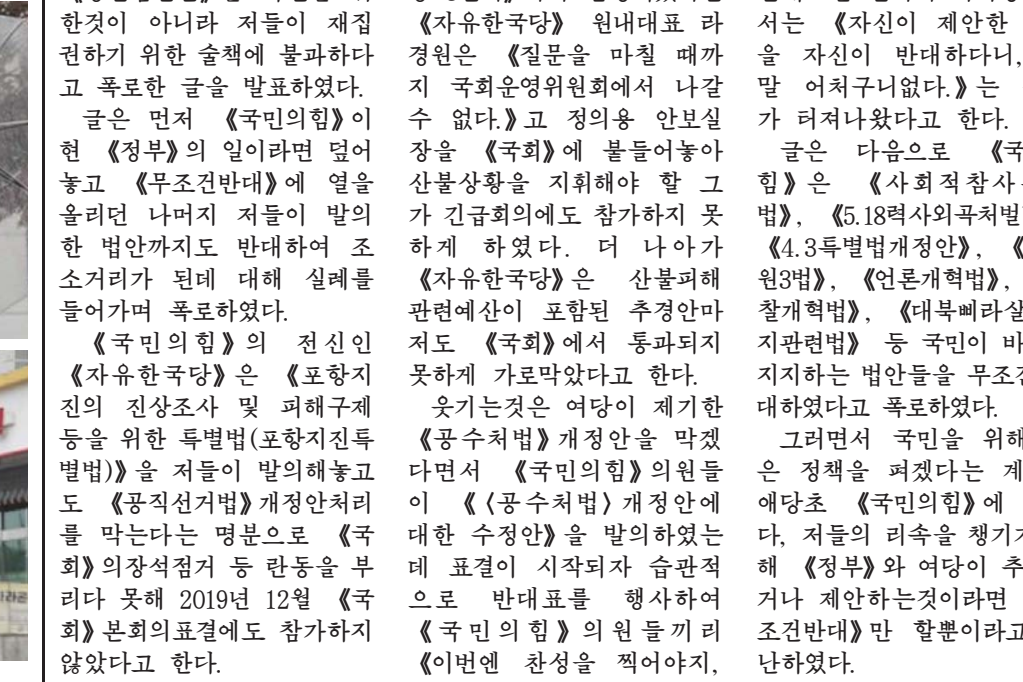
일제는 1939년부터 패망당시까지의 6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조선에서 실로 수십만마리에 달하는 말과 돼지, 양 등을 강도적방법으로 빼앗아갔다.

그로 인하여 조선에서 집집송마리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농촌집들에서는 집짐승을 기르지 못하였다.

축산자원의 급속한 감소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평락시켰으며 빈궁에 시달리게 하였다.

실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저지른 축산자원약탈책들은 그 강탈수법과 수량이 있어서 상상할수 없는 극히 야만적이고 범죄적인 것이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의 가축마저 말살하려고



조선의 소들을 항구를 통해 약탈해가는 일제

사랑과 정의로 화목한 나라

이 땅에는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많다.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에 활짝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듯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과 미풍이 날마다 늘어나는 공화국이다. 얼마전에 목격 한 하나의 사실이 생동한 화폭이 되어 눈앞에 떠오른다.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향기로운 꽃다발을 아름이 받게 받아안고 활짝 웃는 할머니.

그는 누구인가. 무슨 사연이 있어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일을 축하해주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것인가. 그 할머니로 말하면 젊은 시절에는 영예군인의 안해로, 또 인생의 황혼기에는 애국 자 어머니로 불리우는 서재필로인이다.

영예군인작가의 안해이며 삼지연혁명전직직간설장 석공작업반명예석공, 황해철련합기업소 명예용혜공, 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명예용혜공, 칠골혁명사적지명예종업원 등의 부름으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서재필로인.

그의 생일을 맞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던 것이다. 그들속에는 다 있었다. 서재필로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어머니처럼 모시고있는 부부며 그와 인연을 맺은 때로

오늘 아침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예사로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또 하루의 혁신을 약속하며 우리 내외가 출근준비를 서두르고있는데 책가방을 멘 아들이 먼저 집을 나서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거라.》 아들을 바래주고 출근길에 나서니 등교길에 오른 아이들의 꽃망울같이 예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한눈에 안겨왔다.

얼마나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미래인가. 아마 저애들의 집집마다에서도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정답게 울려왔을 것이다.

나도 어릴적 아침마다 이 말을 하며 집을 나서곤 했고 돈 한푼 내지 않고 소학교, 중학교를 다니며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또 이 말과 함께 주체교육의 최고전

우리는 얼마전 갖가지 비단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있는 평양비단상점을 찾았다. 상점에는 비단으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옷과 이불, 배개 등 수십여종에 달하는 비단제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수경봉사원은 조선비단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조선비단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서 비단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서 비단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얼마전 갖가지 비단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있는 평양비단상점을 찾았다. 상점에는 비단으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옷과 이불, 배개 등 수십여종에 달하는 비단제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수경봉사원은 조선비단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조선비단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서 비단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서 비단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얼마전 갖가지 비단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있는 평양비단상점을 찾았다. 상점에는 비단으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옷과 이불, 배개 등 수십여종에 달하는 비단제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수지연필생산에 바쳐가는 마을

—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아서 —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첫외정》상표를 단 수지연필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길동무처럼 친숙해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첫외정》수지연필을 생산하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았다.

민들레학습장 (2)

하다가 집에 들어서는 나의 종아리를 거두고 매를 드시며 하신던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귀전에 울리는 듯하다.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그것이 서러워 쿵쾅쿵쾅 울다가 잠들어버린 내 머리맡에 어머니는 밤새 책을 꿰매어 새 책처럼 만들어 놔 주셨었다.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다시 학습장을 썼지 않았다. 그것이 다 넓은 학습장일 지라도 말이다.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우는 공화국의 전반기12년제 무상무급교육제도와 돈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다닐수 없는 남조선의 교육제도를 대조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같은 세양도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 알찬 열매로 되는가 쪽정리로 되는가로 달라지듯 북과 남의 아이들의 광범한 모습이 반영된 대조적인 말이다.

《책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나.》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밝아지고 민족의 미래가 창창하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출근길에서도

늘 보아오던 하나의 현상에서 많은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황금벌떡부근에 있는 만경대-평양역로선 캐드전차정류소에 펼쳐진 광경이 나에게 인상깊게 안겨왔다.

캐드전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과학기술도시들과 새로 나온 상식책들을 읽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며 교과서와 학습영들을 손에 들고 학습에 열중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얼마후 캐드전차 정류소에 도착하자 질서있게 오르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전차에 올랐다. 이때 의자에 앉아 외국어 학습에 여념이 없던 한 청년이 전차에 오르는 예가 어머니에게 《여기에 애기시오.》라며 자리를 양보하고는 또다시 학습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성은 책을 읽어가다가 중요한 대목이나 부분에는 표시를 해가며 학습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내가 얼마전에 취재지에서 낫을 익힌 평양기방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김정희녀성이었다.

인사를 보내며 무슨 학습을 하길래 그러도 열중하는가고 물으니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원격교육학부 졸업시험공부를 합니다. 저에게는 출근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출퇴근하는 1분 1초도 귀중히 여기며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해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급 우리 조국은 더 빨리, 더 높이 비약할것이고...》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주는 고



민들레학습장에 글을 쓰는 어린이들

수필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품들이 들어있다. 교복도 신발도 다 나라에서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나라에서 안겨준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침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며 집을 나서서 아침을 볼 때마다 어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 아들에게만 아니라 등교길에 오른 저애들도, 그들을 보며 기쁨의 미소짓는 어른들도 다 공화국의 고마운 인민적사랑을 가슴부듯이 느끼고있을 것이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색깔고운 분양고운 비단제품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비단은 가볍고 질길뿐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손맛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수한 전직품의 하나이다. 이미 원시시대말기와 고대시기에 배, 모시와 함께 질 좋은 비단들이 많이 생산되었고 세나라시기에는 비단짜

는 기술이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고려시기에는 비단생산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 종류도 훨씬 늘어났을뿐 아니라 그 질이 또한 우수하여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중동지역까지 수출되어 세계에 《고려비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전국 각지에 뽕나무재배면적과 비단생산지들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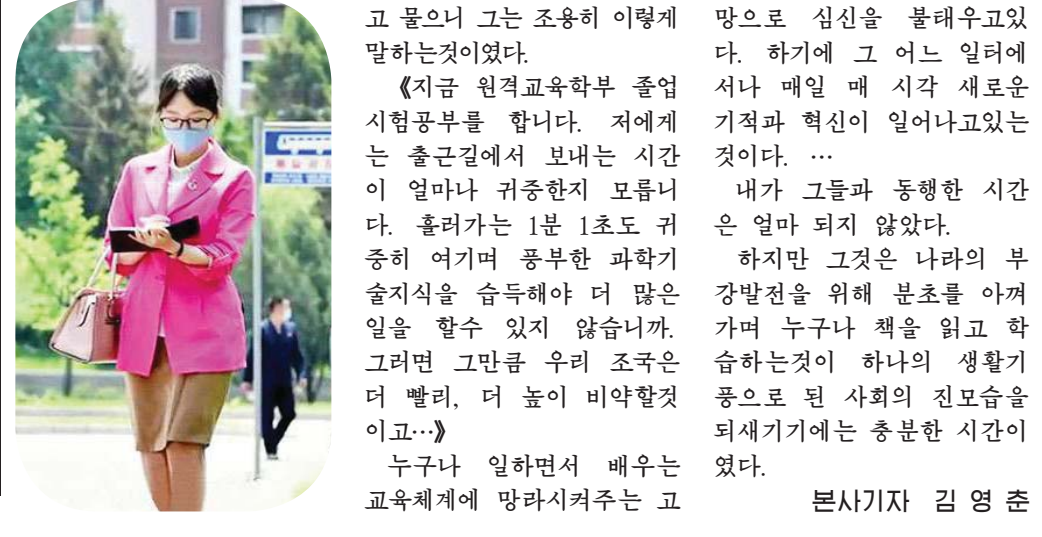
위대 한 수령님께서 주체43(1954)년 6월 우리의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비단천제품들을 보여주시고 새 제품들을 《약산단》, 《구룡단》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며 비단천생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었다. 현재 평안북도

의 녀변, 박천전직공장은 국내의 유명한 비단생산단위로 알려져있다. 비단의 역사를 흥미있게 들었고는 우리에게 그는 조선비단은 지금도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속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비단옷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최근 우아하고 손맛이 유연하며 착용성이 좋은 조선비단이 위생학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상점에는 저녁시간이지만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상점에서 우리의 만난 중구역에 산다는 최성배로인은 비단으로 만든 속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피부병이 없어졌으며 땀냄새가 없어졌다. 부드럽고 매끈하므로 입은 후 피부와 옷사이의 공간에서 쓸림을 감소시키며 피부에 일정한 안마효과도 준다. 이 상점의 비단제품들이 가격



평양비단상점



본사기자 림광훈

전통적인 보양음식의 특색을 살려 - 평천추어탕집을 찾아서 -



일명 민물인삼이라고도 불리는 미꾸라지는 그 영양학적 가치로 하여 건강보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선조들이 미꾸라지를 식생활에 이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다. 역사자료에는 고려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즐겨 먹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조선본경왕조시기의 기록에도 미꾸라지가 휴양물속에서 산다고 하여 니추라고 불렀으며 보통 추어탕과 함께 미꾸라지를 순두부에 넣고 응결시킨 모두부를 가지고 가공한 특이한 추어탕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추어탕은 소화흡수율이 높고 먹으면 기운을 돋궂는 나뉠라 간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것 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노력만 하면 인민들에게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계절과 조건에 관계없이 어느때든 봉사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더욱 분발하게 되었습시다. 이들은 미꾸라지서식장을 꾸려놓는데만 그치지 않고 생리특성에 맞는 양어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미꾸라지양어의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봉사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미꾸라지먹이를 만들어 큰 실리를 얻고 있었다. 이곳 봉사자들은 미꾸라지료리봉사를 잘해나가는 과정에 전국 미꾸라지료리경연을 비롯하여 수많은 료리축전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금 많은 손님들이 추어탕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식사간에는 손님들이 보양음

식인 추어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꾸라지료리를 맛나게 들고 있었다. 리엔미봉사원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에 대해 해설하며 미꾸라지농마튀김, 다진미꾸라지떡볶이, 미꾸라지전부리초침, 미꾸라지버섯볶음, 미꾸라지닭알찜, 미꾸라지튀기 등 이 식당에서 만드는 30여가지나 되는 미꾸라지료리의 이름들도 소개했다. 평천구역 봉하동에서 살고

있는 한 로인은 예로부터 보양음식으로 일러온 미꾸라지는 나는 계절이 따로 있다 하였지만 1년 사시절 이 식당에서 즐겨나오는 추어탕의 구수한 냄새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있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곳 식당을 자주 찾곤 한다고 말했다. 이곳 봉사자들은 민족보양음식인 추어탕을 더 특색있게 봉사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체조강자 리세광

다부진 육체와 두눈에 빛나는 정기, 명호와 같은 담찬 기상, 완전무결한 동작 수행... 《리세광선수처럼 훌륭한 선수를 가지고있는 조선이 부럽다.》 이것은 리세광 선수가 2014년 10월에 진행된 제45차 세계기체제조선수련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때 세계체조에서 울려나온 찬란의 목소리이다. 리세광은 10대의 어린 나이부터 4.25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는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의 무게에 의하여 마련된다것을 명심하고 그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남들이 창조한 동작을 모방하여 패턴을 쥐는것은 창조가 아니다.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것을 창조하자! 이것이 그의 신념이고 배짱이였으며 목표였다. 그는 2003년부터 국제경기에 출전하였으며 제45차, 제46차 세계체조선수련대회와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2개의 우승컵과 9개의 금메달을 비롯한 많은 메달들을 쟁취하였다. 세계는 제45차 세계기체제조선수련대회에서 리세광 선수가 창조한 두개의 새로운 동작을 보게 되었다. 국제체조련맹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그의 조마동작들인 뒤공중 3회전 돌면서 360° 방향바꾸기, 앞공중 7형 3회전 돌면서 180° 방향바꾸

기를 심의하고 리세광동작으로 정식 명명하였다. 《리세광동작1》과 《리세광동작2》로 명명된 이 체조동작들은 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서 시작달리기로부터 공중에서의 돌기와 착지까지 속도가 빠르면서도 제치있는 련결동작을 배합한 최고급의 기술동작이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리세광 선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기체제 조남자자마운동경기에서도 그는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세계적인 체조강자인 그는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월 식 현 상 이 있 었 다

5월 26일 공화국에서 월식 현상이 관측되었다. 국가과학원 평양천문대 연구자들은 이것이 완전월식 현상으로서 18시 45분경부터 시작되어 21시 53분경에 끝나며 달이 지구의 그늘속에

들어가 제일 가운데자리에 놓이게 될 시간은 20시 19분 경으로 예측하였다. 평양에서 달이 뜨는 시간이 19시 45분경이므로 맑은 날씨인 조건에서는 명확히 관찰할 수 있지만 이날 저녁 호

린 일기조건으로 하여 월식 현상에 대한 전기간의 관측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각지에서 부분적으로 월식현상을 목격하였다. 모란봉에 대한 깊은 예측과 사랑이 반영되어있는 전설들에는 아름다운 모란봉을 가지고있는 궁지와 자부심, 외채림락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아름다운 모란봉을 지켜싸우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마음이 깊이있게 담겨져 있다. 신기로운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전설 《홍부동》, 평양총각의 착한 마음에 감동되어 천지조화를 일으켜 청류벽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놓았다는 전설 《청류벽이 생긴 이야기》 등은 모란봉

국기비물질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모란봉을 평양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모란봉에서 받아안게 되는 사상감정과 생활정서를 반영한 전설들을 창조하였다. 모란봉에 대한 깊은 예측과 사랑이 반영되어있는 전설들에는 아름다운 모란봉을 가지고있는 궁지와 자부심, 외채림락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아름다운 모란봉을 지켜싸우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마음이 깊이있게 담겨져 있다. 신기로운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전설 《홍부동》, 평양총각의 착한 마음에 감동되어 천지조화를 일으켜 청류벽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놓았다는 전설 《청류벽이 생긴 이야기》 등은 모란봉

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전설들이다. 평양성에서 살던 처녀의 불행을 두고 가슴아파하며 그를 구원하려고 애를 쓴 강동총각의 깨끗한 마음을 전하는 전설 《청류정의 달밤》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전설 《행복의 문》을 비롯한 전설들에는 평양사람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인성태도가 그려져 있다. 아름다운 평양과 모란봉을 지켜싸운 장수의 이야기를 담은 전설 《을밀장수》, 녀인의 몸으로 외적을 치는 싸움에 나선것을 기릴향의 투쟁내용을 담은 전설 《개일향과 연놀이》,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펼쳐나선 평양성사람들의 투쟁에 감동되어 모란봉의 쥐들까지 떨쳐나섰다는 이야기를 담은 전설 《쥐의 사당》 등을 비롯한 전설들은 아름다운 평양을 지켜싸운 백성들의 투쟁정신을 반영하고있다. 본사기자

경관적 가치가 높은 금강소나무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소나무들 가운데는 그 모양이 아름다운 금강소나무도 있다. 이 소나무는 이름 그대로 금강산일대를 포함한 강원도에서 주로 자란다. 줄기는 이갈나무처럼 매우 곧으며 120년 이상 자란 나무의 아름다움은 실로 현연하기 어렵다. 특히 깊은 산속에서 바위와 어울려 골짜기라는 금강소나무는 주변의 경관을 한껏 돋구어준다. 바다가휴양소들에 심으면 방풍작용과 함께 주변경치를 아름답게 장식해주기도 한다. 곧은 줄기와 매끈하

고 윤곽이 나는 진붉은색의 나무껍질, 사철 푸른 잎새를 자랑하는 금강소나무는 아름다우면서도 맑은 정서를 주는 것으로 하여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다. 일반소나무에 비하여 매우

고 자라는 속도가 빠르며 경제적이란 또한 높다. 금강소나무는 가수와 건구생산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급목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사기자



사화

림제와 화전놀이 (4)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량반들속에서 풍악이 울리며 울긋불긋 꽃게 차린 기생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자 농군들도 이에 질세라 가만있지 않았다. 새납소리 량방한 속에 부파 장고가 동당거리자 농군들도 모두 기분이 붕붕 떠서 돌아갔다. 성미가 급한 축들은 참지 못해 어느 사이 한잔을 기울였는지 얼굴이 불꽃처럼 달아났다. 흥을 돋우며 《어서 지켜내소. 저 쪽한테 우리가 지겠수다.》, 《꽃지짐을 기다리다가 목젓 떨어지겠소.》 하고 큰 소리로 너인들을 독촉했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듯 번쩍들과 술들마다에서는 참기름이 바질바질 뚝뚝 고소한 냄새를 사방에 풍겼다. 그 냄새가 참말 목젓이 요동할 지경으로 기막혀서 모두 저도 모르게 닭알침을 꿀꺽꿀꺽 삼켰다. 집에서 쟁쟁은 안주로 한잔을 마신 사람들은 몇이 안되었지만 그와 한분새로 흥이 나서 돌아치는 사나이들 모두의 얼굴색도 마치 얼근한듯 붉게 물이 들었다. 흥에 겨운 림제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어허! 이것 봐라. 술단지들은 아직 야구리가 봉한채로 있는데 다들 몽땅 얼굴에 붉은 물이 들었으니 웬놈의 감투끈이지?》 어느해인가 백경을 찾아왔던 길에 사린적이 있어 그가 들이 없는 량반으로 패남아인줄 아는 농부들이 그에게 기꺼이 응수해나섰다. 《붉은 진달래꽃잎이 어린 때문이지요.》 《봄벌에 취했소이다.》 《기분에도 취하구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림제는 찬사를 금치 못했다. 《듣고보니 참말 그렇소. 진달래꽃잎이 어렸다. 봄벌에 기분이 들었소. 정말 명담이요. 화창한 오늘을 아주 실감있게 보여준 명담이요. 명담! 그런데 저 량반님네들이야 이런 진미를 과연 느낄수 있겠나?》 마른 작정이물이 피어오르는 번쩍들마다 마주앉은 녀인들이 진달래꽃을 버무린 훌훌한 밀가루반죽을 국자로 고서서 참기름이 재래재래 끓고있는 번쩍위에 점점이 떠놓았다.

척! 치-척! 규구멍을 간지럽히는 기름 냄새가 진달래꽃향기와 짙게 어울려 허공에 떠돌았다. 주린이 놓인 여러 번쩍들의 들레들에서 요란한 손뼉소리와 함께 《하야!》 하는 환성이 터졌다. 한것은 화전-꽃지짐이란 번쩍에서 따끈한것을 골추입으로 가져다넣어야만 제맛인것으로 하여 벌써 많은 사나이들이 군침부터 앞세우며 번쩍들의 들레에 대어섯씩 둘러앉아있었기때문이었다. 다 식어서 차가워진 화전은 벌써 화전이 아니기에 불길에 따끈하게 달구어 익힌 음식이랑은 의미에서도 화전이라 일컫는것이다. 어떤 아낙네들은 번쩍에 꽃잎을 먼저 놓고 그우에 밀가루반죽을 얹은 뒤 또 그우에 꽃잎을 얹어서 뒤집는 방법으로 화전을 지져냈다. 이때의 화전은 앞뒤판에 꽃잎이 찰떡 붙어 우선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 좋은 음식은 역시 맛도 좋기마련이다. 농군들은 제 집에서 싸온 음식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

것저것 널뉘뉘 집어삼키며 좋아라 떠들었다. 그저 씩는 흥내만 벌분 장담이 콩알을 통채로 채듯 화전 한잎을 한입에 꿀떡 넘기곤 하는 농군을 보고 한 녀인이 《아주머니,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익기도 전에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지 않게 가버어 타하는 소리에 그 대답이 또한 걸작이었다. 《아주머니, 내 사정 좀

것저것, 질반나마 설었어두 배안에 들어가면 다 익지요. 에-헛!》 누군가가 발을 달았다. 《보아하니 자네 거 콩밭에 서술치겠어. 아주머니, 거 반죽버치 치마말에 쓸어넣소. 번쩍에 익힐 사이이 없이 급한 저 사람 생반죽을 칠 통채로 들이킬지 어찌 알겠소.》 와하하! 좋은 날이었다.



바주시유. 모두가 복숭아씨 같은 큰 눈들을 휘둘리며 화전을 도둑질해가듯 훌쩍훌쩍 집어가는 판에 언제 다 익기를 기다리며 한가스에 씹는 단 말ियो. 익은걸 먹으려 다간 구경도 못하겠수다. 까

백경이 한 아낙에게 슬그머니 일었다. 《한집시 열은 담야 백호선생께 올리라구. 영 논지가 말랐고그래. 아, 그래 접잖은 량반께서 어찌 번쩍에 마주앉을수 있겠나.》

녀인이 부리나게 화전접시를 소반에 놓아 가져가자 림제가 팔을 내저으며 마다하였다. 《그만두라구. 내가 남이 주는걸 받아먹을바에야 집에서 먹지 왜 예까지 왔을고.》 이러며 농부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앉은 림제를 보고 백경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었다. 《저, 저... 너무하구만. 좀 참지 않구, 썩-썩!》 백경은 못마땅히 혀를 차면서도 림제앞으로 저가락을 내어밀었다.

림제는 그것도 물린 다음 타들어가는 싸리 한가치를 집어들어 한철만 뜯겨어 저가락 한쌍을 만들었다. 《이래야 제맛이 난다오.》 제가락 직접 만든 싸리저가락으로 팔뚝만 한 화전 한점을 입에 훌쩍 집어넣던 림제가 별안간 《아!》 하고 가벼운 비명을 쳤다. 모두의 눈이 등그레졌다. 백경이 급히 물었다. 《걸렸소? 됐소? 원, 이런 번이라구...》 사실은 입안이 메는듯이 뜨거워 어마겉에 내친 비명이었으나 패남아 림제는 손을 뉘뉘 내저으며 《무슨 소릴? 꽃지짐을 따라 허가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기에 그만 급해서... 허, 허!》 하고 그럴듯이 둘러쳤다.

◎ 속담과 뜻 ◎

- 아이들이 있어야 집안에 웃음이 있다. 가정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야만 화목과 행복이 있고 웃음이 깃든다는것을 이르는 말. - 아이가 품다니까 종자탑을 잡는다. 너자들은 자기의 아이가 품다고 하는것을 제일 좋아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부차적인것이 주되는것보다 더 크거나 많은 경우를 이르는 말. - 아이도 아홉겉질을 입는다. 아이를 입히는것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의 좋은 형제

어느 한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있었는데 형은 아우를 끝까지 사랑하였으며 아우는 형을 극진히 따르고 존경하였다. 만약 부모들이 《애들아, 이 나무를 누가 해왔느냐?》 하고 물으면 형은 《그건 동생이 해왔습시다.》라고 하였고 동생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형님이 해왔습시다.》라고 서로 위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되는 해에 형님은 아우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준 다음 따로 이웃에 새살림을 꾸려주었다. 그해에 농사가 잘되어 벼만 가리를 마당에 쌓아놓고 형은 동생이 생각되어 《아우는 농사를 잘 지었으니 농량은 되겠지만 새살림이요보니 이것저것 장만하게 많을게다.

우리가 농사지은것 좀 주어야 하겠는걸.》 하고 그날 밤에 한집 잔뜩 지고 아무도 모르게 동생의 난가리에 덧놓고 존경하였다. 만약 부모들이 《애들아, 이 나무를 누가 해왔느냐?》 하고 물으면 형은 《그건 동생이 해왔습시다.》라고 하였고 동생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형님이 해왔습시다.》라고 서로 위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되는 해에 형님은 아우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준 다음 따로 이웃에 새살림을 꾸려주었다. 그해에 농사가 잘되어 벼만 가리를 마당에 쌓아놓고 형은 동생이 생각되어 《아우는 농사를 잘 지었으니 농량은 되겠지만 새살림이요보니 이것저것 장만하게 많을게다.